

개발도상국의 건축과 설계

다음은 지난 2월11일 우리나라를 방문한 서독의 저명한 건축공학 교수인 「아르놀트 괴르테」(Arnold Körte) 교수(다름슈타트工大)가 행한 강연내용을 옮긴 것이다.

강연의 주제는 “개발도상국의 건축과 설계”(Planning and Building in Developing Countries—the Darmstadt Concept)로 주요 내용을 간추려 소개 한다./편집자/

개발도상국의 건축 및 설계에 관해 내 견해를 제시하기 전에 몇가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 있다. 첫째는 사람이란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으로부터 세상을 바라보듯이 내 견해가 서구적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독일은 소위 제 3세계로 “건축전문어를 수출”하고 있다는 논쟁이 일고 있는 곳이라서 단순히 공업의 수출뿐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 건축학의 관념, 건축술의 디자인, 설계에 대한 유행과 그 동향의 전달 등에도 관계하고 있다.

우리가 세계적으로 관념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즐기던,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상관없이 세상사람들은 전세계 개발의 모델로서 채택된 사례들(건물이나 출판물)에 대해 예리한 눈길을 보내고 있고, 역사적으로 산업화된 서구세계를 지향하는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란 무엇이며 실제로 개발의 의미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나라들을 개발도상국이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개발국과 피개발국의 한계가 모호하여 상당히 상대적인 말이 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도 그 말의 근원적 의미를 참되게 말하기란 어렵다.

마르틴 하이데거처럼 건축-거주지-존재의 3부작이라고 할지 또는 기존부분, 만들어지고 있는 것, 전혀 지방적 건축전통이 없이 외부에서 흘러 들어온 것인지를 정의하기가 곤란하다. 지구상의 모든 인간의 문화를 철저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며 개발국을 철저히 잘 알고 있는 이도 없

다. 그러므로 제 3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이 모든 여건이 충족치 못하므로 이점에 관해 두가지, 즉 첫째는 개발에 관한 연구의 내용과 둘째는 그 접근방법으로 한계를 두었다.

1960년대 미국 캠브리지 대학의 Walter Gropius의 TAC 사무실에서 제 3세계의 광대한 계획에 대해, 또 캐나다의 마니토바대학에서 “취락연구의 중추”에 대해 과학자, 건축가와 함께 연구하였다. 여기서 북극과 사하라 사막의 주거에 대해 둘다 극한지역에 정착했다는 것과 풍부한 자원에 대한 인간의 극한적 도전이란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1970년대에 나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인간주거의 原型에 대해 심취해 있었다. 원시주거에 관한 연구는 우리자신의 발전을 되돌려 생각케하며 개발사업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예술 건축의 역사와 문화역사 사이에 엄격한 기능적 구분이 전통적으로 존재해 왔고 종교·문화에 깊이 뿌리박힌 건축은 좁은 의미에서의 건축학적 역사에는 맞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개발도상에서 저질러진 많은 실수, 즉 실질적 도움, 적당한 공학, 스스로 돕는 것을 진전시키는 대신 그들의 목전에 요구하지도 않은 산업주의를 밀어넣음으로 해서 생겨난 많은 실수들을 알고 있다.

자기류의 건축이나 공학에 관한 잡동사니 기술에 흥분하지 말며 우리 자신의 과거, 주택건축의 수천년에 이른 인간의 경험으로 형성된 업적 중 무엇이 더 미래지향적인가를 생각해야 개발의 접근방법에 있어 우리가 그러리라 상상했던 것과 실제와는 커다란 틈(gap)이 있다.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문명의 내면적 가치와 정당성을 무조건 인식하며 학습있는 사람이 아닌 경험있는 사람이 개발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다.

불신, 상한 자존심, 수세기 동안의 좋지못한 경험, 백인들의 약속 불이행 등이 개발국가 사이에 야기되는 문제의 핵심이다. 토착민에 대한 신뢰, 그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감성, 자발성이 개발에 근본이 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커미션을 바라고 돈을 빌려 근동,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오늘

날의 개발사업의 현실이 되고 있다. 자국의 형편이 켈 때 되돌아 가는 조건으로 제 3세계로 옮겨가는 건축가를 훈련하는 것이 우리의 교육목적이 될 수 없다. “Darmstadt案”의 목적과 내용을 알아보자. 이 案의 첫번째 의무는 세계의 가장 부유한 나라로서 소위 개발국가를 돕는 것이다. 즉 우리가 얻은 이론과 실제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점과 공업에서의 선구자라는 입장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 혜택을 나누어 덜 특혜를 입은 나라에 양도하는 도덕적 의무인 것이다.

두번째로는 개발국을 돕는 것은 바로 自國의 건축과 설계방법에 직접적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개발사업의 부산물이 곧 우리의 건축관습에 새로운 감각, 디자인의 새로운 정수가 된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도시계획의 새로운 관점이다. 많은 개발국가의 취락형태는 유럽중심의 그리스-로마형 격자모양의 구조에 갇혀 지내던 우리에게 신선한 설계관념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Grand Circle’ 광대한 원이라는 이 설계는 여러 아프리카 나라에서 촌락형태를 통해 그 정당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소통의 형태 이상의 독특한 생성력있는 설계관이다. 단순히 사물의 이동방법으로서의 도로망에 익숙해 있던 우리에게 ‘Grand Circle’은 거대한 공간 구조에 원의 결합에 의한 강력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다.

Aldo van Eyck의 말을 인용하여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인간은 수천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존재해 왔다. 만약 우리가 장구한 과거를 현재에 투사시키지 않는다면 풍부한 환경적 경험이 우리의 현재 속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것도, 과거에 대한 향수적 열망도 아닌 오히려 현재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된 현재의 방편으로 과거를 미래에 투사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감상적 역사주의나 현실주의, 이상주의에 대한 유일한 처방이다.

과거·현재·미래는 인간의 정신내면에 영속적으로 작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건축은 역사가 없는, 약속된 장래가 없는 건축이 되고만다.